



헬스케어타운 운영지침 완화로 날개달까

한라산 등정 인증서 모바일에서 발급

무인발급기 방문 없이 제주 아이오티 앱에서 가능

제주도, 9년만 의료법인 운영지침 완화 결정 시민단체 “부실 의료기관 난립, 형평성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9년만에 의료법인 운영지침을 완화하면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지침 완화와 따라 부실 의료법인 유지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등 향후 의료기관 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에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의료기관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제주분원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또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입차건물

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나 예외 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입차기간을 10년 이상, 입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입차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 개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형평성 논란, 부실 의료기관 난립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의 의료법인 운영

지침 완화 결정에 즉시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입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제주도 내 다른 지역,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다”면서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법인 분사무소의 입차허용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 입차허용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될 수 없고 특정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며 “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입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운·김도영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정상 등반객들에게 인증서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12월 구축한 '한라산 등정 인증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늘부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제주 아이오티(IoT)' 앱에 한라산 등정 인증서 발급 기능을 추가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한라산 등정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한라산국립공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등정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등반 당일 정상에서 찍은 위성항법장치(GPS) 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탐방로 입구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를 결제하고 인증서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 구축으로 무인발급기를 찾아가야 필요 없이 '제주 아이오티(IoT)' 앱에서 인증서를 신청하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등정 인증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는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의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제주 아이오티(IoT)' 앱을 검색해 앱을 설치한 후 인증서 발급을 선택해 예약번호 등록, 정상에서 찍은 위성항법장치(GPS) 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고대기자 bigroad@ihalla.com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본격

도, 사후관리조사단 활동 통해 협의내용 준수 점검

제주지역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은 64개소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골프장 2개소, 관광개발 27개소, 어항 6개소, 도로건설 2개소, 기타 27개소 등이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후관리조사단' 활동을 실시한다.

각 분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지역주민

(52명)으로 꾸려진 명예조사단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조사로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 민원은 물론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관리·감독한다.

조사단은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협의 포함) 관리 준수 여부와 이행조치 요구사항, 관리책임자 지정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한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조사기법을 도입해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이태운기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방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구서만 잔뜩 들고 온 망국적 굴욕 외교”

서울시청광장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12년만의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아권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한 굴욕 외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은 지난 1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빈손이 아닌 청구서만 잔뜩 들고 온 망국적 굴욕 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본 정

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에 제주도민 전체가 지금 절망에 놓여있다”며 “우리 대통령은 일본 총리 면전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국민 생존권과 안전을 짓밟아선 안 된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실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 뿐 아니라 독도영유권·일본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양국 현안을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 국민 의힘은 1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정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서울=부미현기자

도·행정시 공무원 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12명을 채용하는 '2023년도 제1회 공무원 채용 계획'을 도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응시 분야 및 인원은 CCTV 모니터링 3명, 도로보수 지원 2명, 과학영농분식실 지원 1명, 공공정책연수원 구내식당 조리 1명, 가축방역 보조 1명, 기계설비유지관리 3명 등

이다. 도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 받고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각각 30명과 42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상반기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태운기자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컨설팅 참여 관광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관광사업체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하여 제주 관광사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고대상: 도내 관광사업체
- 모집업체: 10개소(선착순 모집/신청서류 완비일 기준)
 - 업체별 신청 순서대로 심사 거쳐 선착순 10개소 최종 확정
- 지원내용
 -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경영, 마케팅, 인사/노무, 회계/세무) 지원/전액 무료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내이며 설립이 1년 이상 된 사업체
 - 규모기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기준: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 내 일부 업종(협회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설립한 지 1년 미만인 사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통 및 사치형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
 - 신청일 현재 유·폐업중이거나, 국제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광진흥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3. 20.(월) ~ 3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ra230206@naver.com - (팩스) 064-751-8864
 - 신청서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 → 공지사항 → 2023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 모집공고 참조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부(064-741-8745)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그랜드보청기

입춘대길(入春大吉) 물가안정 대 이벤트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플래티넘 中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107184 히트브랜드 대상 1위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를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